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

11/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삼하 7:12-14

12 네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할 것이다.

마 16:18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요 6:51, 57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요 20:22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원했다. 그러나 … 하나님은 다윗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임을 깨닫기 원하셨다. 이처럼 사무엘기하 7 장은 예표를 통하여 어떤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할 수 없다. 우리 자신으로나 우리의 성경 지식과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로 우리는 바뀔 뿐만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에서 또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사무엘기하 7 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어떤 것을 건축하시는 데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일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많이 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빌 1:21),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4 장, 187-18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변화는 신진대사의 과정으로서, 새로운 어떤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하고 옛 요소를 내보냄을 통해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매일 합당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함으로써 그의 안색이 건강해지는 것으로 예시될 수 있다. … 이러한 영양 공급은 신진대사의 과정을 일으켜 새로운 요소를 가져오고 옛 요소를 배출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자양분이 새로운 요소를 공급하며, 이로 인해 낡은 것들이 배출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자라고 바뀌고 성숙할 것이다. 이것이 변화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소화와 동화라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체험함으로 생명 안에서 점진적이고도 내재적으로 바뀌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유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유기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해야 한다.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는 유기적이시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요

6:51, 57, 7:37-39),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 오늘날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실지적이시고 참되시며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가 ...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들이섬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속에서 신진대사의 과정 곧 영적인 소화와 신진대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다. 이러한 조성이 건축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어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되신다. 이러한 건축의 결과로 우리는 매우 특별한 부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다.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사실상 여호와께서 사무엘기하 7 장 12 절부터 14 절 상반절까지에서 예표의 방식으로 다윗에게 예언하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수 있고, 인간적인 것인 사람의 씨가 신성한 것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성경의 예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것에 관하여 예언하신 것이었다. 이것은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될 것임을 가리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보물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6 장, 200-20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4-27 장

11/7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3:9-15 (12, 23)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10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11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13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14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15 그 일이 불타 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마 13:19-23

19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20 또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 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22 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 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거둡니다.”

우리는 모두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앙망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오, 주님, 제게 긍휼을 베푸셔서 제가 저의 타고난 성질이나 저의 타고난 존재나 시기나 분쟁이나 질투에 속한 어떤 것으로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버지의 본성에 속한 금과, 저를 구속하고 끝내고 대치하는 십자가에 속한 은과, 성령의 변화시키는 일로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구속을 체험하고 결국에는 그 영에 의해 변화되는 영역인 연합된 영 안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건축하기를 갈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 장에서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농장에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자라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자랄수록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이 될 것입니다. ...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교리나 실행을 높이지 마십시오. 다만 이미 놓인 유일한 기초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십시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위에 건축할 때 헬라적인 어떤 것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보다 그 영의 변화를 산출할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구속으로 건축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순수한 금이 될 것이며 은과 보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27 장, 272-27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를 얻으셔야 한다. 한편으로 이 재료는 요소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재료는 인성을 지닌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포함한다.

요한복음 14 장 23 절에서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절의 ‘거처를 정하다’라는 말은 에베소서 3 장 17 절의 ‘거처를 정하다’와 같은 의미이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의 일을 하신다. 이 두 절들에 있는 건축에 관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많은 관련이 있음을 함축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3 장에 있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로 설명된다. 씨는 토양에 뿌려져서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란다. 그러므로 이 씨는 그 자체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씨는 그 자체와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란다. 따라서 그 산물은 씨와 토양, 둘 다에서 나온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칙을 본다.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에 뿌려져야 한다. 만일 씨가 모래

마태복음 13 장에서 씨는 신성이고, 자양분 있는 토양은 인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 속에 어떤 자양분을 창조하여 두셨다. 하나님은 신성한 씨를 위한 토양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인성의 자양분이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수 있다.

우리 안에 뿌려진 씨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다. ... 우리가 자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씨는 더 빨리 자라고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성장과 건축은 같은 것이다. 주 예수님은 “내가 ...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마 16:18)라고 선포하셨다. 이 우리 안에서 신성한 씨가 자랄 때 일어난다.

생명의 근원이신 삼일 하나님은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안으로 뿌리셨다. 일단 이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우리안의 무언가와 만나 자라기 시작한다. 성장의 정도는 신성한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씨에 자양분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 오직 좋은 토양(마 13:8, 23)만이 신성한 씨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한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 장, 227-22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26-27, 31-32 장

11/8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엡 3:11, 14-21 (14, 16-17, 19)

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14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5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해 드리기 위한 것이다(엡 3:16-19). 에베소서 3 장에서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 하나님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며, 즉 그들의 온 존재를 점유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14-19 절). ‘거처를 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이케오(ka?toikeo)’라는 한 단어이다. 이 헬라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처소에 정착하는 것, 즉 어떤 거처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 년, 3 권, 하나님의 신약 경륜, 39 장, 63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하고 계신다. 이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골 1:27),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이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 자신의 거처를 만들고 계신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께서 삼일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길을 제공해 드린다. 삼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이미 뿌리를 내렸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동안, 아버지는 영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일하신다. 이것은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생각(히 4:12)과 의지(행 11:23)와 감정(요 16:6, 22)과 양심(히 10:22)으로 구성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기 시작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점차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점령하시며, 우리의 양심 전체를 소유하기 시작하셨다.

우리의 마음은 네 개의 방이 있는 한 채의 집과 같다. 이 네 개의 방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모든 방 하나하나를 점유하시고, 각각의 방을 구석구석까지 점유하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되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엡 3:18). ... 이 모든 차원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인데, 그분의 차원은 곧 우주의 차원이다. ...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할

때에만 그분의 우주적인 차원을 깨달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된다(엡 3:19).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놀랍고도 뛰어나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조성체 안으로 들어간다.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상태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의 온 존재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온 존재의 모든 통로와 구석구석까지 점유하시게 된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며,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의 연합이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고, 신성하신 하나님과 그분께 구속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이 연합, 이 구성체는 새 예루살렘이라 불린다. ...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으며, 또한 여전히 들어가고 있다. ...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 속 깊이 들어오신다. 결국 그분은 우리 온 존재의 모든 구석과 통로에 완전히 거주하시는 정도까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 년, 3 권, 하나님의 신약 경륜, 39 장, 632-63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 년, 3 권, 하나님의 신약 경륜, 39 장

11/9 목요일

아침의 누림

엡 3:17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고전 3:12

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갈 4:19

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골 1:28-29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29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고후 3:3-6

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5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비어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사무엘기하 7 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지만 너의 필요는 내가 내 자신을 너의 마음 안으로 일해 넣는 것이다. 너의 필요는 내가 너의 존재 안으로 건축되는 것이며, 그래야만 너는 생명과 본성에서 내가 될 수 있다. 네가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저에게 있어서 삶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윗의 실패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해 넣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이때 우리의 일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 장, 231-23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먹이며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급하는 하나님은 단지 건축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또한 건축되신 하나님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급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의 일은 나무와 풀과 짚일 것이다(고전 3:12).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 보기를 요청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한 지역을 개척했거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일해 넣어지셨는가?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다지 많이 일해 넣어지지 않으셨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을 실행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되실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이들을 양육하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일의 모든 방면에서 내재적인 요소는, 우리가 건축하시는 하나님과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청한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완결되신 영으로 실재화되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전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고 계신다. 그 목적은 요소이신 그분 자신과 구속받고 높이 올려진 인성에서 나온 무언가로 집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이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집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는 그리스도의 확장과 확대이다. 우리가 낳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네 단계로 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일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3 장 12 절에서 바울은 건축 재료에 두 범주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범주는 인간적이고 세상에 속한 나무와 풀과 짚이며, 둘째 범주는 귀한 보석이자 변화된 재료들인 금과 은과 보석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나무와 풀과 짚, 곧 우리의 타고난 배경을 근원으로 하여 성취한 것들과 타고난 생활 방식으로 건축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손상할 것이다 (고전 3:17).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을 상징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이러한 재료들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하고 있는 이는 사실상 우리가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건축하고 계신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 장, 232-233 쪽, 24 장, 18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33 장;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 장

11/10 금요일

아침의 누림

삼하 7:1-5, 11-14

1 왕이 자신의 궁전에 거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셨을 때에,
2 왕이 신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지금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3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하시니, 가서서 마음에 품으신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4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5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11 내가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을 세운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더욱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선포하건대,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12 네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할 것이다.

롬 1:3-4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기하 7 장 12 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씨에 관해 말씀하시고, 14 절 상반 절에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 이 절들은 분명히 사람의 씨 곧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계시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의도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함축한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지극히 위대한 것이다. ... 성경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한 실체가 되는 것과 관련된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1 장, 23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은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 곧 하나님-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의 아들이시다. 한번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라고 질문하셨다(마 22:41-42 상). 그들이 그분께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 말합니까? ...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마 22:43, 45)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분께 대답할 수 없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지적하고 계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기하 7 장 12 절부터 14 절 상반절까지에 계시된 것이다.

바울은 사무엘기하 7 장에 계시된 것을 로마서 1 장 3 절과 4 절에서 설명하며,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한다. ...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조성되었고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사람이라 불리는 한 실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하여 사람의 요소가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사람은 신성한 요소로 조성된다. 이것은 신성한 요소가 사람의 요소 안으로 건축되어 이 두 요소가 서로 연합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조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요소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된다.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인성 안으로 조성될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사람의 요소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될 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다. 이것이 신약에 계시된 건축이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 건축이나 몸의 건축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 건축이 사람의 요소 안으로 신성한 요소를 조성하고 신성한 요소 안으로 사람의 요소를 조성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건축은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를 서로 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성은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를 하나의 실체로 만든다. 이것이 교회의 건축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이 건축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이 상호 조성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의 일이 이 상호 조성과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일은 나무와 풀과 짚과 같다(고전 3:12). 그러나 우리의 일이 이 상호 조성의 일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실 것이며, 그것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계 21:2, 11, 18-21).(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1 장, 236-2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8-31 장

11/11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계 21:2, 18-27 (2, 18-19)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8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21 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24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25 그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들이 종일토록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26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27 어떤 속된 것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의 신성한 계시의 결론은 한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이다. 이 건축물은 신성과 인성의 섞임과 연합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 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로 증명된다. 요한계시록 21 장 3 절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언급하며, 22 절은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것이며,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양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처라는 것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이 건축물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계 21:12), 열두 기초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다(14 절). 이것은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 본질과 중심과 전부가 되시는 삼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으로 이루어진 구성체임을 나타낸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 장, 229-23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실체로 함께 섞이고 연합되어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 이 둘 곧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섞이고 연합되어 함께 건축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우리 모두는 이 이상을 보아야 한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 장, 230 쪽)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건축의 한 방면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금 기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진주 문이신 아들 하나님과, 보석의 벽을 위한 영 하나님으로 새예루살렘을 단장하고 완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 곧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마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공급과 신성한 공급을 지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곧 이기는 사자-어린양을 먹음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고 완결할 필요가 있다. ... 요한계시록 21 장 2 절은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 새 예루살렘은 금과 진주와 보석, 즉 요소이신 삼일 하나님으로 단장되어 있다.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고전 3:9)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10 절에서 그는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라고 말한다. 바울이 의도한 것은 이와 같다. “나는 이미 기초를 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놓인 기초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손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장하고 있다. 나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감히 나 자신과 나의 육체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새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감히 나의 의견들, 나의 옛 자아, 나의 선호, 나의 견해를 가져오지 못한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이신 아버지 하나님, 진주이신 아들 하나님, 보석의 성벽을 위한 영 하나님으로 신성한 건축물을 단장하기 원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활에서 반드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2 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6 장, 114-1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2 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6 장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2:1-21;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6-57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Knowing the Time and Today's Warfare

Scripture: 로마서 13:11-14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 29

Supplemental Reading: None

Hymn: 887

churchinnyc.org/bible-study

찬송: 972 (英) 하나님의 중심 뜻 (中:768)

- 1 하나님의 중심 뜻 사람과 연결하여 주가 모든 것 되어 계획 성취함일세.
- 2 흠으로 만든 사람 영과 혼과 몸 있네 하나님을 받아서 생명 삼을 수 있네.
- 3 생명이 흐를 때에 사람은 보석 되어 주의 성전 건축해 그의 영광 나타내.
- 4 이것은 거룩한 성 그의 사모하는 집 하나님이 원하신 새 예루살렘일세.
- 5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 된 건축일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족 누리네.
- 6 하나님과 어린양 보좌 위에 계시네 권위의 중심에서 생명수 강 흐르네.
- 7 주는 생명의 나무 강 좌우에 자라네 생명 열매 맺어서 성도들 공급하네.
- 8 하나님은 주 안에 빛이 되어 비취네 어둠은 다시 없고 영광의 빛 황홀해.
- 9 주는 사람 안에서 사람은 주 안에서 사람 안엔 하나님 사람은 주의 표현.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3권, 하나님의 신약 경륜, 39장

11/12 주일

아침의 누림

출 24:18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사십 일 밤낮을 그 산에 머물렀다.

출 25:1-9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거제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너희는 자원하게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서 나의 거제물을 받아야 한다.
- 3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거제물은 이런 것들이다. 곧 금과 은과 놋쇠,
- 4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 세마포 짜는 실, 염소 털,
- 5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돌고래 가죽, 시땀 나무,
- 6 등잔용 기름, 바르는 기름에 넣을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 7 마노 보석 그리고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보석들이다.
- 8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라.
- 9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의 모형에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